논어 12편 안연 7장 · 원문·풀이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曰：「去食。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

독음 · 자공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왈 필부득이이거 어사삼자하선 왈 거병 자공왈 필부득이이거 어사이자하선 왈 거식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쉬운 풀이(요약) · 정치에는 먹을 것, 군비, 백성의 믿음이 필요하다. 부득이 덜어야 한다면 군비와 식량을 먼저 덜더라도 믿음은 지켜야 한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貢 바칠 공 공 / 問 물을 문 문 / 政 정사 정 정

曰 가로 왈 / 足 발 족 족 / 食 밥 식 식 / 兵 군사 병 병

民 백성 민 민 / 信 믿을 신 신 / 之 갈 지 / 矣 어조사 의

必 반드시 필 필 / 不 아닐 불 / 得 얻을 득 득 / 已 이미 이 이

而 말이을 이 / 去 갈 거 거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斯 이 사 사

三 석 삼 삼 / 者 놈 자 / 何 어찌 하 하 / 先 먼저 선 선

二 두 이 이 / 自 스스로 자 / 古 옛 고 고 / 皆 모두 개 개

有 있을 유 / 死 죽을 사 사 / 無 없을 무 무 / 立 설 립 립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